



'승점 22점' 중국을 잡아야 한다

월드컵 최종예선 통과 위해 오늘 중국과 6차전... 승점 3점 가져가야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머릿속에는 '22'라는 숫자가 박혀 있다. '22'는 슈틸리케 감독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통과를 위해 목표로 내건 승점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해 9월 시리아와의 2차전에서 0-0으로 비긴 뒤 '22'라는 숫자를 처음 언급했다. 그러면서 "브라질월드컵을 승점 14점으로 진출했는데 이번에는 2경기가 늘었으니 승점 22점을 확보해야 지역 진출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은 총 10경기다. 한국은 최종예선이 반환점을 돈 현재 승점 10(3승1무1패)으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오늘 중국 창사의 허싱스타디움에서 열릴 중국과의 6차전은 승점 22점으로 가는 중요한 고비다. 계획대로 승점 3점을 가져가면 러시아로 향하는 길이 한결 수월해진다.

하지만 만에 하나 패할 경우 남은 4경기를 모두 이겨야만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첫 A매치인 중국전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다. 앞서 한국은 중국과 31차례 맞붙어 18승12무1패를 거뒀다. 허정무 감독 재임 시절인 2010년 동아시아선수권에서 0-3으로 질 때까지 32년 간 무패를 질주하며 '공한중'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홈과 원정 구분 없이 한국은 늘 중국에 강했다. 주장 기성용은 "그동안의 성적을 봤을 때 중국에 한 번만 졌다. 선수들도 잘인 자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해 9월 1차전과 비슷한 전술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은 완벽에 가까운 운영으로 3-0까지 앞섰다. 막판 집중력이 흔들리면서 두 골을 내주기는 했지만

중간까지는 중국을 완벽히 압도했다. 당시와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번 경기에는 손흥민이 경교 누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파에서 뛰는 손흥민은 한국 공격의 핵심이다. 손흥민의 빈자리는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황희찬(잘츠부르크), 남태희(레퀴아) 등이 채울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 자원인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의 측면 이동도 가능하다. 지동원은 "(손)흥민이가 좋은 선수이고 대표팀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선수들도 안다"면서 "다른 좋은 선수들도 많고, 스타일이 다른 선수도 있다. 흥민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만 다른 모습으로 중국을 압도하겠다"고 자신했다. /김민근기자

미국, WBC서 일본 꺾고 오늘 푸에르토리코와 결승전

미국 야구대표팀이 제4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결승 무대에 진출했다. 미국은 22일(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대회 준결승전에서 2-1로 승리했다. 1-1로 팽팽하게 맞선 8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브랜든 크로퍼드의 안타에 이어 이안 킨슬러의 중월 2루타로 일본의 추격을 따돌렸다. 야구의 중추국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WBC 우승에 도전한다.

미국은 오늘 오전 10시 푸에르토리코와 결승전을 치른다. 1.2라운드로 6전 전승을 기록했던 일본은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강적을 만나 아쉬움을 남겼다. 선취점은 앤드류 매커친의 배트에서 나왔다. 대회 내내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매커친은 4회초 2사 1.2루에서 1타점 좌전안타를 날려 선취점을 올렸다. 미국 선발 테너 로어크는 4이닝 무실점 피칭으로 임무를 완수했고, 두 번째 투수 네이트 존슨의 호투로 5회

까지 1-0의 리드를 지켰다. 그러나 6회말 1사 후 존슨이 기쿠치 료스케에게 동점 솔로 홈런을 맞았다. 전열을 재정비한 미국은 8회 크로퍼드와 킨슬러의 안타를 묶어 역전에 성공했다. 미국은 8회부터 마크 멜런슨과 팻 네섹, 루크 그레거슨을 투입 불펜진을 모두 투입해 경기를 끝냈다. 일본은 4인타의 빈공에 그치며 무릎을 꿇었다. /김민근기자

V-리그 왕좌, 누가 차지할까?

대한항공 vs 현대캐피탈, 25일 챔피언결정전 1차전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이 진검승부를 펼친다.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은 25일 오후 2시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프로배구 남자부 챔피언결정전(5전 3선승제) 1차전을 치른다. 대한항공은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해 챔피언결정전 무대에 선착했다. 휴식과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주축 선수들이 잔부상과 체력 고갈로 신음하고 있지만 마지막 부흥을 불태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대한항공 박기원 감독과 코치들은 지난 21일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플레이오프 2차전을 보여 상대의 전력을 체크했다. 박기원 감독은 현대캐피탈 선수들의 전술과 움직임을 체크하는 등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메모를 했다. 현대캐피탈은 분위기가 좋다. 시즌 중 1승5패로 열세였던 한국전력을 완파했다. 현재 분위기를 살려 지난해 챔피언결정전에서 OK저축은행에 당한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각오다.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은 대한항공이 최강 전력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사실 전력은 시즌 내내 기복 없는 경기력을 보여준 대한항공이 앞선다. 이번 시즌 상대전적에서도 4승 2패로 대한항공이 앞선다. 대한항공의 장점은 한국 최고 세터 한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학민과 가스파리니의 공격은 리그 최강이다.

리시브가 불안할 때도 충분히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선수들이다. 센터를 이용한 속공과 시간차, 킥오픈 등 다양한 공격 옵션도 갖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 승부는 예측하기 어렵다. 플레이오프에서 증명됐다. 현대캐피탈은 문성민의 활약 속에서 레프트의 선전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두 팀 모두 우승에 대한 갈증이 크다. 박기원 감독은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했을 당시 "세계를 돌아 40년 만에 처음 우승을 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각오를 보였다. 최태웅 감독은 선수 시절 많은 우승 경험을 했다. 그러나 지금 함께 고생한 선수들과 함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속내를 밝혔다. /김민근기자

군산남초등학교 야구부, 3년 연속 전국소년체전 전북대표팀 선발

군산남초등학교(교장 문화자) 야구부가 오는 5월 27일 충남에서 열리는 '제46회 전국소년체전' 초등부 야구 전북대표로 선발됐다. 이번 대표 선발로 군산남초 야구부는 연속 3년째 전북대표로 참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2016년도 전국소년체전에서는 동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작년 11월 군산월영야구장에서 열린 1차 선발 우승 후 18일에 있었던 2차 선발전에서 전주 진북초에 패했으나 최종 결승전에서 4회 콜드승을 거두며 통쾌하게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최종 선발전에는 군산남초원 5.6학년 학생들이 동참하여 열띤 응원을 펼쳐 주위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문화자 교장이 부임한 후 군산남초 야구부는 도내 초등 야구의 최강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많은 변신을 시도했다. 학부모 부담 제 경비를 학교회계에 편성, 운영하여 학교운동부를 육성



하는 학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 정규수업을 의무로 이수하도록 하였고 야구부 영어캠프 운영, 맞춤형 학습지도 등 학생 선수 학력 증진을 위해 적극 힘썼다. 전라북도청의 '전북의 별' 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올해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학부모 부담 경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야구부원들의 원활한 훈련을 위하여

각종 야구방비 구입 및 지자체 및 전북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동장 주변 그물망 및 조명 설치, 전광판 교체 등 야구부 시설을 개선했다. 이러한 노력은 학교 및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높여 신규 부원 모집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최강 군산남초 야구부'라는 타이틀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근기자

전북체육회, 전북체육 활성화 위한 체육진흥실무협의회 개최

전북체육회는 22일 전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전북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10차 체육진흥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5년 3개 기관(전라북도, 도교육청, 도체육회)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별 협조사항 요청 등 전라북도 체육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는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김인태 전북도청문화체육관광국장과 최형원 전북체육회사무처장, 조병호 전북교육청인성건강과장들이 참석해 전북체육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내용으로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와,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홍보,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및 대표 선발대회, 전북체고 체조장 관리방안, 기초종목육성 및 학교운동부 지원, 제54회 도민체전 개최, 2017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운영, 청소년 클럽대회&무예대회 및 체육문화축제 개최 등에 대한 각 기관별 추진업무에 대한 논의와 협조가 이루어졌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